

2024년도 제25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24년 12월 24일(화)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창용 의장(총재)
신성환 위원
장용성 위원
유상대 위원(부총재)
황건일 위원
김종화 위원
이수형 위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여자	김언성	감사	이종렬	부총재보
	김웅	부총재보	채병득	부총재보
	권민수	부총재보	박종우	부총재보
	이재원	경제연구원장	이지호	조사국장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최용훈	금융시장국장	윤경수	국제국장
	오금화	외자운용원장	백무열	법규제도실장
	임건태	금융통화위원회실장	허현	의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39호 - 「금융안정보고서(2024년 12월)」(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금융안정보고서(2024년 12월)」(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금번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과 함께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금번 보고서는 금리인하가 금융불균형 축적 등 향후 발생 가능한 금융안정 리스크와 최근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구조 변화를 감안한 잠재리스크를 주요 현안 분석으로 다루었음. 또한 참고박스에서는 자영업자 연체율, 부동산PF 및 환율 상승 등 국내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이러한 리스크들이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유동성, 그리고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음. 아울러 지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한 위원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제안된 대외부문 분석 강화 필요성을 반영하여, 금번 보고서부터는 기존의 자본유출입 분석에 더해 외환 및 외화자금 시장에 대한 분석도 추가하였음.

다음으로 금번 보고서에서 담고자 한 세 가지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음. 첫째,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양호한 금융기관 복원력과 강건한 대외지급능력 등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둘째, 자영업자 및 한계기업 부실누증, 부동산PF 등 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가 상존하는 가운데 대내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금리인하 과정에서 중장기적 금융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음.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을 지속함과 동시에, 필요시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우리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야 하겠음.

다음으로 12월 10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먼저 여러 위원들은 금번 보고서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를 전반적으로 균형감있게 다루었다고 평가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보고서 발간 시점까지의 최근 시장 상황을 반영한 메시지가 언론과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관련부서는 금번부터 보고서의 분석 범위를 발간 2주전까지의 가용한 금융안정 관련 정보를 반영하도록 조정하고, 발간 직전의 시장 변화와 이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주관위원 메시지나 부총재보 주관 기자설명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추가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이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서에 수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일부 위원들은 자영업자 관련 정책 대응으로 자금지원과 채무조정 외에도 재취업 지원 등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한 보다 구조적인 대책을 추가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다른 일부 위원은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가계신용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고정금리 대출 확대가 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의 충격감내 능력을 제고시키는 등 가계부채의 구조가 질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임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이외에도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디레버리징을 위해 리츠(REITs) 활용과 같은 구조적인 대책도 함께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아울러 여러 위원들은 대외지급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대외건전성 지표들이 대체로 안정적이고 금융기관의 복원력이 양호한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외환건전성은 현재 강건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관련부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보고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금융안정보고서(2024년 12월)」(안) (생략)

<의안 제40호 -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6조에 의거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수립·공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 부서는 12월 18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일부 위원은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전통적인 통계지표가 주는 정보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행지표 개발 및 미시데이터 확충 등을 통해 다양한 지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공개시장운영 원칙과 함께 그간의 대상기관 확대 선정의 효과를 점검한다는 점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한편 일부 위원은 최근 경제구조 변화가 통화정책 수행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구고령화, AI 등 구조적 문제와 관련한 연구를 강화하고 중장기 정책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마지막으로 일부 위원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향후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발표시기를 포함한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관련 부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동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6조에 의거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붙임과 같이 수립·공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안) (생략)